



전주시와 전주시혁신센터, LH전북지역본부는 1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구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2018년 첫마중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대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 첫마중길, 중심시가지형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위해 전문가 토론회 열어... 인근 상업지역 대상

전주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전주시혁신센터, LH전북지역본부는 1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구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2018년 첫마중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대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분별한 개발사업보다는 아시아문화심장터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온 민선 6기 전주시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의 첫마중길

비밀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서성원 전주시혁신센터 국장은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추진했던 첫마중길 전주시 중심시가지형 공모 개요와 현재 추진 중인 공모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 안건을 제시했다.

이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 계의 폭 넓은 의견과 사업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부처연계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2017년 중심시가지형 공모 내용에 대한 검

토와 2018년 핵심 사업 중 과급효과가 큰 거점중심 사업, 대상지의 잠재력에 대하여 전문가 12인의 지명토론을 통해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다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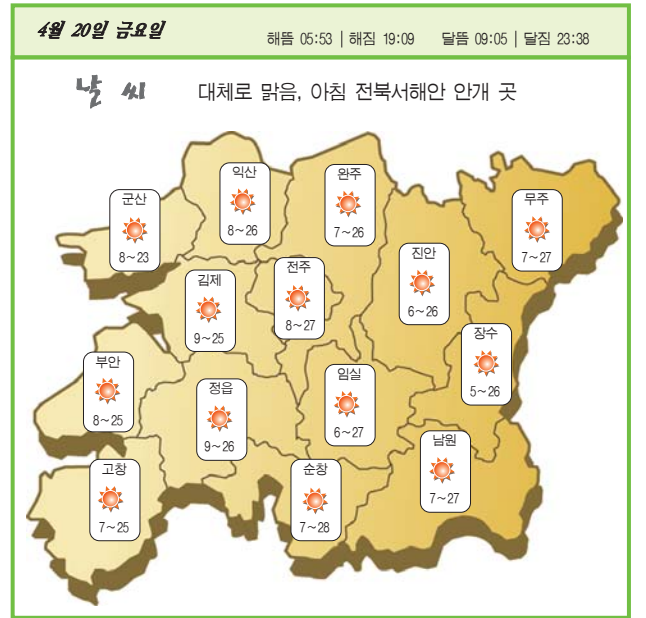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경쟁력 회복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지의 민·관의 협력과 유관기관(주민)들과 갈등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는 시 차원의 중·장기적 예산 집행 계획과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사업 실행수단 제안을 듣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시가 준비해온 첫마중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은 전주역과

지난 1980년대 택지개발로 조성돼 업무·상업의 중심지로서 기능했었지만 현재 신시가지 확장으로 업무기능을 상실하고 노후주택 시설들이 밀집되는 등 도시 경쟁력이 약화돼 재생 필요성이 높은 인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문제점 분석에 나서 주요 사업 내용을 선정하고, 인근 주민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이를 사업계획으로 정리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의 △첫마중길 이용활성화 방안 △지역상인 및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뉴딜사업 대상지에 토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기동취재반



전주교대, 완주군 체육회와 MOU 체결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8일 완주군청 4층 회의실에서 완주군 체육회와 체육교육발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7일 전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은 곧바로 행보로 전주교육대학교의 대외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MOU체결은 전주교육대학교의 체육활동 재능기부와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완주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고취와 더불어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OU 협약내용은 ▲예비교사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지역 체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및 기타 활동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성민 기자

다문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초·중등 퇴직교원 20명으로 교육봉사단을 구성해 운영되는데, 신청 학교의 진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학교와 연결해 교육봉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봉사단 사전연수를 실시했으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안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계획, KSL교육의 교육과정과 실제, 성폭력 예방·아동학대 예방·생활안전교육, 교육봉사 시 유의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문모 전 교장은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소통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성민 기자

탄소산업 홍보대사 '3D프린팅 자동차' 전시

'탄소복합재 · 3D프린팅 적용 친환경 커뮤터카' 19일~5월말 '과학의 날' 행사에

미래먹거리산업인 탄소섬유와 3D프린팅 등 전주시 신성장동력산업의 결정체인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홍보대사가 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19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대전 중앙 국립과학관에서 열리는 '과학의 날 기념 특별 전시프로그램'에서 3D프린팅 제조기술로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해 제작한 친환경 커뮤터카를 전시한다. 커뮤터카는 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전라북도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섬유강화 3D프린팅 전기자동차(BASTA)'이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이 순수 자체기술로 제작한 친환경 커뮤터카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17 JBC ASIA'에서 최초로 선보였으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주월드드림경기장 내

특별전시장에서 진행된 '2018 제5회 국제 3D프린팅 · 드론 코리아 엑스포'에서는 1호차와 비교해 대형부품을 한번에 출력할 수 있는 소재와 출력기술이 개선된 2호차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는 이번 과학의 날 기념 특별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도시 전주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대형 3D프린팅 장비 △탄소섬유강화 프린팅소재 △프린팅 소프트웨어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 등 3D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탄소섬유 강화 3D프린팅 전기자동차(BASTA)는 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국내 최대 규모(가로 2.5m, 세로 2.5m,

높이 2m)의 대형 3D프린터를 통해 한번에 고속으로 출력된다.

특히, 기술원이 개발한 3D프린터는 탄소강화 재료를 사용하는데, 탄소소재를 고분자수지에 섞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3D프린터용 소재를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도 완료한 상태다. 대형 출력물이 충분한 기계적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3D프린팅에 최적화된 설계와 적층제어기술이 필요하며, 3D프린팅 노즐의 온도 및 압출속도 제어, 탄소섬유복합재료의 적층속도 및 냉각제어, 적층방식 제어를 통해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특성을 유지하면서 경량화하기 위한 적층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기술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적층제어기술은 3D프린팅에서 단일재료만으로 중공(속이 비어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기동취재반

전북대, 창업선도대 성과평가 '우수'

전북대학교가 '2017년 창업선도대학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17일 경기도 광주 콘지암리조트에서 진행된 2017년 성과 우수 창업선도대학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대학 선정 및 창업진흥원 원장상을 받았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5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 전라북도 창업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사업과 지원, 창업교육,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창업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축 및 운영했다.

이번 우수등급 평가는 전국의 40개 창업선도대학 가운데 지난해 성과와 금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반영하였고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해당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라북도 창업중심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관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선도대학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창업아이디어와 아이템이 훌륭한 예비창업자와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전북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